

오바마 대통령 취임 美 교계 지도자들 불만

동성애 지지 및 낙태 등에 대한 교계 반발 반영

지난 21일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수많은 교계 인사들이 SNS를 통해 이에 대해 논평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 목사(마스힐 교회)의 말이었다.

드리스콜 목사는 트위터에 “오늘 성경 위에 손을 얹게 될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발언은 2,100명에 의해 리트윗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번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으나, 새로운 의료법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고용주가 내는 의료 보험료에 직원들의 피임약 비용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존 파이퍼 목사(베들레헴 침례교회)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낙태를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지지했던 시민권의 개념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나 사악한 위선”이라고 말했다.

러셀 무어(남침례신학대학교) 학장은 트위터에 “대통령 축하 @ 버락 오바마. 축복, 지혜, 방향성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취임식 축도자로 내정됐다가 과거 자신의 동성애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던 루이 기글리오 목사(패션시티교회) 역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문자적인 축도의 의미는 ‘좋은 + 말하다’이다. 오늘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멘션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취임식 연설에서 동성애 인권단체이자 성소수자 운동의 상징이 된 ‘스톤웰 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성애 형제와 자매가 법 앞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로 동성애 지지자로부터 축도받고 동성애자 시인으로부터 축시를 들으며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취임연설에서 언급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김영신 기자

제38대 남가주장로협 깃발 들다 “돈독한 협력으로 선한 열매 낼 것”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이하 남가주장로협) 제38대 회장에 홍순헌 장로가 전격 취임했다. 20일 오후 시온

성결교회(최경환 목사)에서다. 남가주장로협은 이날 남가주 교계 각 단체장을 비롯 한국장로회총연합

회 대표회장 김정남 장로, 총무 최내화 장로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예배를 드렸다.

홍순헌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맡은 소임을 다하고 보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기 동안 각종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지난해 선교사 및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면서 “올해도 미자립교회와 은퇴 장로들을 돕는 재정적 후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간 협력을 돈독히 하여 선한 사업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정남 장로는 축사에서 “8년 전 증경회장단이 추진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신뢰하며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남가주장로협이 앞으로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교회에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특히 장로들이 기도함으로 남가주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연합운동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우 목사는 축사에서 “남가주장로협의 존재 목적을 따라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는

권면을 통해 “진리를 행함으로 존경 받고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취임예배는 사회 김영 장로(수석 부회장), 기도 하기언 장로(증경회장), 성경봉독 백지영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설교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 회장), 헌금기도 김준대 장로, 환영사 최철 장로(원로장로회 회장), 취임사, 축사, 권면, 축파괴 증정, 감사패 증정, 임원소개, 광고, 축도 지영환 목사(남가주한소망교회 담임)순으로 진행됐다.

남가주장로협은 최근 LA 한인회관에 협회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으며, 홍순헌 회장은 특히 올해 남가주교협과 연합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기독일보 창간 9 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 지키는 예배 공동체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주일 대예배: 1부 오전 7:45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본당, 4부 (조용기 목사 영상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3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4-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일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은퇴 교역자들 위한 목자교회, 미주에 첫 지교회 세운다

내달 3일 설립예배... 한국 CTS·오륜목자교회에 이어 3번째



미주 목자교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길소 목사(사진 가운데), 심진구 목사(오른쪽), 김철수 목사(왼쪽)가 본보를 예방했다

은퇴 교역자들은 일종의 '소외계층'이다. 평생 목회사역에 헌신하다 일선에서 물러난 이들 은퇴 교역자들은 매주일 예배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남모르게 가슴앓이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다. 비록 눈과 귀가 어두워 돋보기와 보청기를 사용하지만 조국과 미국을 위한 이들의 헌

신적인 기도는 누구보다도 뜨겁다. 바로 이 원로 교역자들을 위해 세워진 '목자교회(The Pastor's Church)'가 한국에 이어 미주에도 탄생된다.

한국에선 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를 지낸 박천일 목사가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은퇴 교역자들을 위해 2008년 3월 CTS방송사 건물 내

에 이들을 위한 예배공간인 'CTS목자교회'를 처음 설립했고, 이어 오륜목자교회를 세웠다.

"단돈 1천원이 없어 헌금도 못하는 은퇴 목사와 무임 목사가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는 박 목사는 이들 은퇴 교역자 섬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목자교회를 잇따라 세워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3-4백여명 안팎의 은퇴 목회자와 무임 목회자, 또는 봉사자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모인 교회로서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교회다.

그리고 오는 2월 3일엔 LA 한인타운 내에 세 번째 목자교회를 설립한다. 미주에선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목자교회는 해외 제1호 지교회인 셈이다.

목자교회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나라(레 19장32절)'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교육 >선교 >다민족 선교를 3대 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담임 목사제 등의 '제도화'를 거부하고

당회 대신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유연성과 유기적인 틀을 지닌 교회를 지향한다. 담임 목사제가 없으므로 매주 일 예배 설교는 은퇴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미주 목자교회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는 20여년간 칠레를 비롯한 남미 7개국을 중심으로 선교해온 이길소 선교사를 중심으로 심진구 목사(그레이스미션센터), 김철수 목사(은혜교회)가 맡게 된다. 또한 뉴저지 허드슨장로교회 등지에서 목회하다 은퇴 후 LA로 온 김병도 목사가 설립에 이르기까지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축이 된 미주 목자교회 기획위원회는 "원로 교역자들을 위한 목자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뿐 아니라 세계 네트워크 비전을 품고 이번에 출범하게 됐다"면서 "미주에서 활동해온 원로 교역자들을 (동교회) 협동 목사·선교사·전도사·장로로 추대해 명함을 제작해 드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로 교역자들로 하여금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설교에 동참하도록 하며 >은사에 따라 직임을 맡아 현역시절에 축적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까운 선교지 방문, 또는 장·단기 체류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타민족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범에 앞서 "노병(老兵)은 죽지 않고, 사명(使命)엔 은퇴가 없다"는 정신에 입각해 목회 및 선교활동에 매진할 동역자들을 기다린다"면서 많은 은퇴 교역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미주 목자교회는 내달 1일부터 2박 3일간 박천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한인타운 내 6가와 카타리나 인근에 위치한 미주 목자교회(3407 W. 6th Street #806 LA, CA 90020)에서다. 설립예배는 부흥회 마지막 날인 3일(주일) 오후 3시에 드러진다.

정한나 기자

"지역교회 실버목회 활성화, 반드시 이루어야"



최병수 목사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국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복지는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여기서 '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위키백과사전은 복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복지(Welfare)는 '좋은 건강, 윤리적인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신명기 24장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라."

즉, 성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와 자존감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떡으

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복지란 '좋은건강(의료복지), 윤리적인 생활(사회복지), 그리고 성령충만(영성)을 더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정의할 수 있다. 영혼이 잘 돼야 법사가 잘 되고, 좋은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972년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생이 되자마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 사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1976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40년간 섬기고 만 62세 말에 조기 은퇴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마음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생애를 90년으로 볼 때 >30년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30년은 사역하는 기간 그리고 >담임목회 은퇴 후 30년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나와 함께 가는 분들(어르신들)의 좋은 건강, 윤

리적인 생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극히 섬겨온 지역교회를 볼 때 '실버목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눈에 들어왔고 그 일에 앞으로의 남은 삶을 투자할 열정이 솟아난 것이다.

"지역교회는 실버목회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가는 말이다. 은퇴 후 30년, 26만 2천 8백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은 힘써 일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다. 교회 안에 있는 실버세대(65세 이상)에겐 시간뿐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풍부한 경험이었다.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과 건강도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교회 안의 실버들이 가진 이 무궁한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훈련해야 마땅하다. 교회 내에서 실버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도록 목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교회가 이 일을 준비하기도 전에 노인문제가 먼저 다가왔다. 노인문

제의 심각성을 말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들린다. 이 소리가 필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다.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지난해 3월 18일자 한 기독교 신문의 사설은 지역 교회의 실버목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사회를 말하며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국은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그리고 가장 빨리 진행됐다는 일본도 25년 걸렸는데 한국은 2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준비없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특히 우리의 미덕이었던 '어르신 공경' 의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노인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 충동을 느낀 노인이 86.5%나

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노인자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노인자살의 원인 중 23.5%를 차지한 건강 문제다. 둘째는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부담이다. 노인은 병에 자주 걸리거나 체력저하, 건망증 등으로 가족에게 간호와 간병 등의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셋째, 상실감과 사회적 고립이다. 노인자살의 '원인 동기' 중 21%가 '가족의 죽음 등으로 인한 신변 비판'이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일가의 병과 죽음으로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집 밖 출입을 점점 하지 않게 되어 고독 및 고립 상태로부터 우울증에 이르고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민교회 경우는 한국교회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같다고 본다. 물론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노인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70-80년대 한국교회가 노방 전도로, 90-2000년대에는 제자 훈련에 힘을 쏟았다면, 지금은 실버목회에 투자해야 건강한 교회로 대를 이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다.(계속)

글=최병수 목사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 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항암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교훈: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

★ 미주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의 특징 ★

- *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 (The Full Salvation, The Holy Life)
- * 부흥하는 기독교미주성결교회가 설립/운영하는 교단 신학대학
- * 졸업 후 절차에 따라 남녀 목회자 안수하며, 선교사와 전문상담가 등으로 사역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및 ABHE 회원 가입 (Candidate Institution)
-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 성적과 자격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
- * 편리한 위치에 현대식 도서관과 휴게실 등 좋은 학습환경

학위과정
학 부 : 신학사 (B.Th.)
대학원 :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석사(M.M.)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 종생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가 될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원서접수 : 1월 20일 까지
3.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 (웹참조)
4.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5. 개 강 : 1월 28일

겨울학기 집중강의 (2013년 1월 7일~ 25일)

총장 : 류종길 명예총장 : 이정근 이사장 : 조종곤

Tel : 323-643-0301 / Fax :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www.aeui.org

“그리스도인이여, 내 꿈 아닌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라”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나성한미교회 부흥성회 강사로 나서

‘부흥, 하나님의 열정’ 주제로 열린 강의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의 말이다. 그는 지난 18-20일 나성한미교회(전병주 목사 담임)에서 열린 신년 말씀축제 주 강사로 초빙돼 ‘부흥,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19일 저녁예배에서 권 목사는 ‘타오르라’(행1장18절)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신앙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전자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백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에 ‘내 뜻’이 이뤄져야 하는 삶이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삶이기도 하다. 즉, 내가 인정 받아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왼편에 앉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바라며 사는 사람이다. 신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사도행전적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목회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잃어버린 꿈을 되찾으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 1장 7-8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면서 “그들은 성령세례 받으면 자신들의 꿈(마이 킹덤, My Kingdom)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하나

님의 나라(다이 킹덤, Thy Kingdom)였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속적 성취에 있었다. 즉,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주님이 이뤄주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죄는 우상숭배다. 내가 신을 만들어놓고, 그 신에게 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셔야 한다는 것. 내 뜻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움직이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인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평양을 건너올 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다. 그게 우리가 가진 꿈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며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킹덤 드림을 꾸자”고 도전했다.

권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회복하라’, ‘찌그러지지 않는 성품을 소

유하라’, ‘소금과 빛이 되어’, ‘변화하면 부흥합니다’ 등을 주제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정한나 기자



집회를 마치고 권준 목사(왼쪽)와 전병주 목사(오른쪽)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성한미교회가 신년을 맞아 18일부터 2박3일간 ‘부흥,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축제를 열었다.

베델한인교회 11인 청빙위 결성 후임자 물색에 나선다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가 현 담임 손인식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교회 측은 “(동교회) 헌법 제2장 4조에 의해 장로 7명, 안수집사 3명, 권사 1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위원장 김귀성 장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초부터 본격적인 후임 담임목사 청빙활동이 시작됐다”면서 “성도들의 뜨거운 격려와 지원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동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청빙위원회 명단.

곽태일 장로, 김귀성 장로, 김수열 장로, 김정운 장로, 박상곤 장로, 이종교 장로, 조원태 장로, 김성환 안수집사, 송석원 안수집사, 오관선 안수집사, 김혜영 권사

정한나 기자

미주 방송인협회 제23대 이·취임식 열려

제23대 미주 방송인협회장이 취임식이 12일 저녁 LA 한인식당 용수실에서 열렸다.

신연성 총영사와 배우한 LA한인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방송인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MBC출신 미주 방송매체 컨설턴트인 김정수 회장이 취임했다.

김정수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 협회는 주로 전직 방송인들의 참여로 방송인 협회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는

젊은 현역 방송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역 한인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KBS영상제작국 출신 김흥수 전임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오면서 협회 회원록을 만들고 현직 우수 방송인 상을 제정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지난 1977년 전직 아나운서가 주축이 돼 창립된 미주 방송인협회는 지금까지 주로 전직 방송인들의 친목

단체로 머물렀으나 10여년 전부터 한국의 여의도 클럽과 연계되면서 한국 방송계와 교류는 물론 현지 지역 방송인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초기에는 위진록, 유덕훈, 김봉구, 김정태, 장인숙 등 유명한 전직 아나운서들이 대거 참여해 아나운서 교문단 모임 같은 인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자 편집 기술 등 모든 부문으로 회원 자격을 확대해 전·현직 방송인 모임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인디안 알로에 베라

99.6%

신제품
알로에-메타 글루칸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기독교일보 창간 9주년 축하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13년 신[편]입생 모집

- ◆ 봄학기 개강일 : 1월 28일 (월)
- ◆ 모 집 : 대학부(신학-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 가능.
*본교에서 2년 수학 후 졸업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 목사 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본교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다양한 장학 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교육국(BPPE) 인준된 학교로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임.

이번 학기부터 신설된 ESL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강사들은 영어 전공자이거나 테솔(TESOL)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합니다.

- ◆ 봄학기 개강일 : 1월 28일 (월)
- ◆ 구비서류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ptsa.edu)나 본교 사무실로 문의요망.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 장 이상명 박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a.edu

SEVIS I-20 발행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심

고린도후서 9: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세계선교를 도맡아 힘쓰는 중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난이 왔습니다. 분봉왕이나 총독이 자기의 공적으로 로마제국에 더 많은 실적을 오히려 인정받고 더 출세하기 위해 예루살렘 유대인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바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크게 궁핍하게 되는 가난이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일 년 전부터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린도 항구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하고 도와주도록 연보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쾌히 승낙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정성으로 준비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선교사로 다니던 바울은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고린도교회가 당연히 연보를 보내주리라 기대했었지만 1년이 지나도 고린도교회로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다른 한 사람을 함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연보는 복을 심는 것

예루살렘교회에 활보하고 굶주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자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더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일이었고 나하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냐교회 사람들에게 “아가야(그리스 남부)에서는 즉 고린도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교회 지원을 위해 연보를 준비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량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고,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이제 서둘러 준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헌금이라고 하나 헬라어로 ‘로게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금화, 은화, 동전, 지폐 이런 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위해 성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울로기아’라고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늘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과분하게 잘 살게 해 주시는 것과 하늘 소망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믿음의 성금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울로기아’라는 연보를 하는 것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심는 것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당신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또 믿는 형제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복입니다.

옛날 한국이 복음화되기 전에 많은 나라로부터 구제를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경제가 성장되면서 이 복음을 IMF라는 채찍을 맞고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미전도국을 찾아 선교를 하려고 하면서 많은 물질들이 많은 가난한 나라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물질을 복음과 함께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많은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한국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은혜의 꽃이 만발하고 성령의 열매가 전 세계로 맺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제도 어느새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구제하는 엄청난 물질로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잠언11:23-2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에게 복을 전했던 나라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도 복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울로기아’라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고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한국경제를 세계에서 12번째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돕기 위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도울 수 있는 물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교회가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교회가 신앙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를 채워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킬 목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는, 그가 나누어 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넉넉히 밀어주시게 되는 것을 울로기아이스, 즉 복을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보

면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워서 못주는 것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아서 전혀 복을 심지 아니하는 사람은 환란 통과와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은총과 특별한은총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혜택을 베푸십니다. 첫째 한 가지는 자연적인 은혜, 즉 자연은총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 이것을 자연은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은총은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적 가치 제일주의로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정성과 또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면서 구제하는 이 모든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은총으로 열매든지 주십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내가 천하 만국을 진동시키리니 만국에 있는 은과 금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에게 물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압제 하에 착취와 유린당하고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주셔서 세계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죄짓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남은 것들을 거두어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농부가 땅을 믿는 믿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그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 쪽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한 톨이라도 쪼개 쓰고 절약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어 드리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참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우텐테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희생과 수고,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 더없이 기쁘고 만족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넘치게 하시는 특별한은총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한 바 저가 흠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음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후9장 9-10절)

여기서 심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심을 것, 즉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더 더 심어 드리고 싶은가 하는 복음을 심을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넉넉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구제해서 복음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가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쓰는가를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은총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넉넉하게 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낌없이 뿌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x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말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 총장: 박희우 박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www.sejongbiotech.us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제품박스에 한국식약청의 인증마크와 효능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은 다릅니다!

세종바이오텍은 한국식약청(KFDA)이 공인하는 건강기능식품만을 공급합니다. 일반보조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공인받은 효능이 제품 박스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박사나 병레이블을 확인하시면 인증로고와 효능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가능하여 공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박스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 213)383-8899

621 South, Virgil AVE, Suite 430, Los Angeles, CA90005

포르테

세종 송보감

미국 캐나다 특·점·판·매

혈당조절, 세포노화방지
 서울대병원 임상(혈당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송보감이 4년간 사랑받는 이유

- 서울대병원 임상·혈당조절, 콜레스테롤조절 인정
- 한국식약청(KFDA)공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혈당조절, 노화방지 기능성 공인
- 광동제약,롯데제약 등 한국에서 판매중
- 원료:솔잎증류농축액 450MG, 비타민E 3MG (PINE NEEDLE DISTILLED CONCENTRATE)

세종송보감은 이런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 혈액순환, 혈당조절, 혈관청소를 원하시는분
- 당뇨, 내당능장애(예비당뇨인), 혈압, 고지혈증을 우려하는 분
- 중성지방,콜레스테롤, 혈전등을 걱정하시는분
- 갱년기로 혈액순환장애를 우려하는 분
- 피부질환이나 위장기능의 개선을 원하는 분
- 전립선건강이나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기를 원하시는분

세종 뇌보감 골드

기억력개선,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보령제약 (보령 수앤수)개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세종뇌보감 골드의 특징

- 기억력개선 및 집중력 증대
- 치매예방, 뇌신경보호, 노화방지효과
- 혈행개선을 통한 만성피로 개선
- 학생이나 연구원 등 지식근로자의 뇌건강
- 인지기능향상 및 두통예방
- 혈액순환 개선

보령제약 임상 개발

세종뇌보감골드는 겔포스, 용각산 등으로 유명한 보령제약에서 임상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한국식약청 공인제품

한국식약청(KFDA)에서 기억력개선, 혈행개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정상유지 등의 효능을 공인받은 세종 뇌보감 골드

문 의: 213.383.8899
 주소 :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복음방송국 4층)

릭 워렌 목사는 이단·종교다원주의자 논란

최근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종교다원주의와 야합했다'는 비난의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 통해 유포되는 가운데, 타코마목사회 회장 이형석 목사(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담임)는 "복음주의 진영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인 릭 워렌 목사를 종교 다원주의자 또는 이단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지극히 편파적인 주장"이라고 바로잡았다.



이형석 목사

이형석 목사는 "릭 워렌 목사는 수많은 메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삼위일체 신앙, 성경의 무오성,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 입장 등, 성경적 신앙을 명확히 밝혀왔다"며 "그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판매 수입의 90% 이상을 헌금하며, 근검한 생활로 선교에 헌신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의 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릭 워렌에게는 알라와 야훼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종교다원주의)"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미국의 Good Fight Ministry라는 기관에서 만들었고, 우리말 자막을 넣은 영상이 유튜브와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 카페에 올라와있다.

7분이 조금 넘는 이 동영상은 릭 워렌 목사 뿐 아니라, 몇몇의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기 Loving God & Neighbor Together>라는 공개서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타코마 목사회 회장 이형석 목사

"사실 왜곡이며, 지극히 편파적" 주장

이 공개서한은 예일대학교 신앙과문화센터(Yale Center for Faith & Culture)에 소속된 기독교 신학자들이 작성한 문서로 2007년 11월 18일 뉴욕타임즈에 처음 공개되었고, 약 300명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선교지도자, 기독교계 지도자 및 목회자들이 서명한 공개서한이었다.

이 공개서한이 작성된 배경에는 2007년 10월 다양한 분야의 이슬람 학자 138명이, <9.11 테러사건>과 그 이후에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

쟁>이라는 갈등과 긴장 고조의 상황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두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적인 공존에 기여하기 위해, 두 종교가 서로의 다른 점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로간의 공통점을 출발로, 종교 지도자들 간에 상호 존중과 대화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자는 제안을 발표한 데 있다.

이런 이슬람 지도자들의 제안에 대해 예일대학교 신앙과문화센터에 소속된 신학자 4명이 기독교계의 답변을 표현하는 문서를 작성했고, 전 세계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300여명의

지도자들이, 예일 센터에서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면서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보다는 상호 대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이슬람권의 제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긍정적인 답변의 일환으로, 작성된 공개서한에 서명한 후 뉴욕 타임즈에 게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개서한은 추후, 복음주의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어 미국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인 레이스 앤더슨 목사는 '이



2011년 존 파이프와 인터뷰하며 자신의 복음주의 신앙을 밝힌 릭 워렌 목사

공개서한에 서명한 것은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현지교회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슬람권 현지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이슬람권 선교전문가들의 권유를 받아 서명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하기도 했다.

이 공개문서에 서명한 인물들 중에는 시카고 월로우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 미국 전국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인 리이스 앤더슨 목사도 있다. 더욱이 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300명의 교계 지도자들 이름을 살펴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총장 이언 토란스 박사,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적 신학자이자 풀러신학대학원 총장인 리처드 마우 박사도 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

또 KWMC 선교대회에 초빙강사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로 동유럽 선교에 대한 권위자인 고든콘웰신학교의 피터 쿨즈미치 교수, 복음주의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로잔선교운동의 대부인 존 스토틀 박사, OM선교회의 국제코디네이터인 피터 메이든 선교사, 위스컨신 엘름부룩교회 스투어트 비스코 목사, 선교신학자들 중에 손꼽히는 인물로 IBMR 국제 선교학연구 학술지의 편집장인 조나 단 볼크 박사 등 복음주의 선교 지도

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종교 다원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릭 워렌 목사는 지난해 4월 미국 ABC방송에서 그의 확고한 복음주의 신앙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새들백교회가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릭 워렌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수정할 자격이 없다. 정책은 유행 따라 왔다가 지나간다. 만약 내가 가진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관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하면서 타협 없는 신앙적 양심을 보여줬다.

또 앵커가 '당신의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수정할 필요를 고려해 봤나?'고 물었을 때, 릭 워렌 목사는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가면 도리어 쇠약해진다. 오늘날 유럽에 교회가 약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보여줬다.

릭 워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나'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대답했으며, 물론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로렌 커닝햄

"평양의 청년들에게 부흥 임할 것"

비전투어 발대식에서 남북통일 소망 전해



로렌 커닝햄(왼쪽) 목사가 19일 비전투어 발대식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제예수전도단(YWAM) 창설자이자 하와이열방대학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Loren Cunningham)가 19~26일 한국의 주요 교회를 순회하며 비전투어를 하고 있다.

로렌커닝햄코리아비전투어준비위원회(위원장 곽수광)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평소 한국교회와 청년들에게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시다"며 "이번 비전투어에서는 '세계선교'와 '통일한국'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저녁 6시 열린 발대식에서는 황성주 박사와 정근모 박사가 인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가수 송정미와 소울 싱어즈의 공연이 펼쳐졌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강연에서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의 청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을 예견했다. 그는 "평양은 1907년 대부흥이 시작됐던 곳이지만, 현재는 원수가 이곳을 차지했다. 평양에 다시 부흥이 임한다면 청년들에게 임할 것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통일을 향한 믿음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6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부흥으로 빨강게 달아올라 영적으로 하늘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북의 청년들이 만나는 것은 헤어진 쌍둥이가 만나는 것과 같은데, 이들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될 수 있다"고 했다.

커닝햄 목사는 1985년 핀란드에서의 강연 도중 소련의 개방을 예언했다. 당시 "소련에서 복음을 전해도 경찰이 붙잡지 않고, 수많은 성경이 소련에 들어오며, 소련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갈 것"이라는 계시를 전했었는데, 모두가 이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고르바초프 때 소련은 개방됐고, 열린 대통령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소련의 공언이 펼쳐졌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강연에서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의 청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을 예견했다. 그는 "평양은 1907년 대부흥이 시작됐던 곳이지만, 현재는 원수가 이곳을 차지했다. 평양에 다시 부흥이 임한다면 청년들에게 임할 것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통일을 향한 믿음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의 손이 남한과 북한에 임했다. 통일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통 선교사와 문화 선교사 뿐 아니라 인터넷 선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WCC 공동선언문 사태' 에큐메니칼 진영, 기로에 서다

“정체성 분명히 하는 입장 표명 필요”

에큐메니칼 진영이 흔들리고 있다. 'WCC(세계교회협의회) 공동선언문' 때문이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 선언문 내용이 에큐메니칼 신학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선언문은 에큐메니칼 진영을 대표하는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의 이름이 들어간 채 발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이번 선언문의 '화합적 의미'엔 대부분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선언문이 갑작스레 나왔다는 점이고, 선언문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다분히 -에큐메니칼의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종교다원주의와 개종전도 등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진보 신학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단순히 'OO금지'라는 말로는 이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진보측 인사들은 NCCK 김영주 총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NCCK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총무는 그 기관의 실질적 수장이다. 그런 총무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언문에 서명을 해버렸다.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에큐메니칼 인사들이 분노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재 이 문제를 두고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심은 '보수나 진보나'

17일 NCCK 실행위에서 'WCC 공동선언문'이 논란이 되자 배태진 목사(기장 총무)는 WCC 총회 준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일부 고교인 인사들이 WCC 한국준비위의 직책과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번 '선언문 사태' 역시 그런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으로, 지금과 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게 배 목사의 주장이었다.

그의 말처럼 WCC 총회 유치가 결정되고 준비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결국 '보수나 진보나'였다.

WCC는 진보 혹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세계기구다. 동시에 보수 진영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기구가 또한 WCC다. WCC 총회 유치 이후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는 반대운동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표현까지 있다.

그런데 WCC 총회 준비위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는 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옳은 말이지만 현실성 없는 말이기도 하다. '연합' 혹은 '일치'를 해석하는 것도 보수와 진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은 그야말로 '똥구름 잡기'에 불과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불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행사를 잘 처리야 한다"

는 대의명분 때문에 이런 답답함을 억눌러 왔다. 이것이 이번 'WCC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다.

그러자 WCC 총회 준비를 에큐메니칼 인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도 나온다. 에큐메니칼 정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이들은 주변에 머물고, 그렇지 못한 인사들이 오히려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선언문은 이미 발표했다. 당사자인 김영주 총무는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가 NCCK 총무인 이상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있다.

배본철 교수(성결대)는 "NCCK 안에서 이것을 김영주 총무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선언문을 함께 발표한 보수측 대표들은 김영주 총무를 개인이 아닌 NCCK, 나아가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표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NCCK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충격이 큰 것이며, 사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럼 에큐메니칼 진영 원로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먼저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는 "NCCK에는 과거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들이 있다. 이것이 이번 공동선언문으로 인해 부정될 수 있다"며 "공동선언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NCCK 차원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문규 선생(전 WCC 의장)은 "이제 와서 총회 준비를 새로 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NCCK는 보수 진영과의 화합 정신은 유지하되 WCC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WCC 총회를 단순히 행사적인 면에서만 준비해선 안 된다. 내용이 중요하고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준비 과정에서 신학적 타산만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광선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일단 NCCK에서 WCC 공동선언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이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선언문 발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전 협의와 조정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상황이 벌어진 이상 (에큐메니칼 진영이 보수 진영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NCCK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아울러 서 박사는 "WCC 총회 준비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진영 원로들이 자문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이영훈 목사, 中 최대 교회서 공식 초청받아 설교

당국 종교비자 허가... 양국 교류 발전에 기여



향주기독교교회총연합회에서 설교 중인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1월 20일 주일, 중국 최대의 교회인 향주기독교교회총연합회(담임 고요셉 목사)에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날 오전 8시와 10시 두 차례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행 13:1-3), '초대교회의 신앙'(행 2:4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설교를 통해 양국 기독교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활발한 교류와 노력이 있었다.

이영훈 목사는 2011년 상하이에 있는 중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경에 위치한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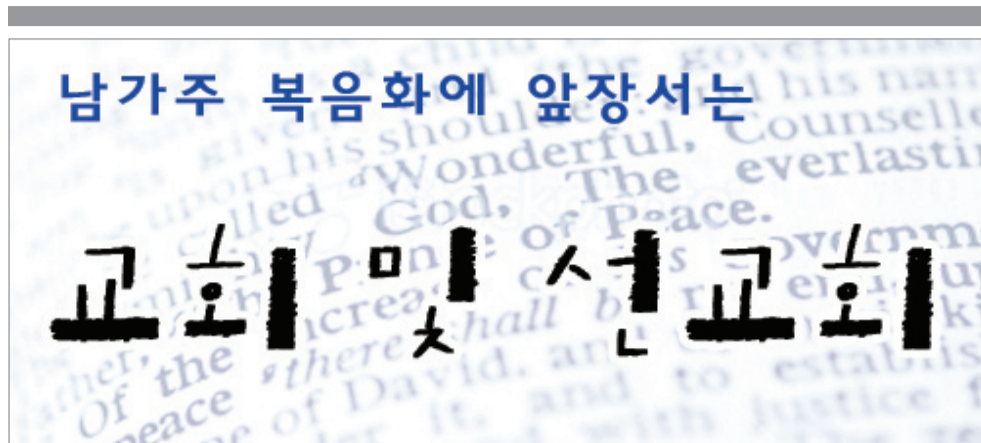
국을 방문하여 교류를 논의했었고, 2012년에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설교가 개최된 향주기독교교회총연합회는 1866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개척 후 10명으로 출발해 7년 만에 출석 성도 1만명으로 성장한 중국 최대의 교회다.

이곳에서 전한 이영훈 목사의 설교 장면은 중국과 1시간 시차간격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전 9시와 11시 예배에 스크린을 통해 동시에 방영됐다. 이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함께 드린, 첫 공동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번 예배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과 중국기독교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집회다. 당국이 이영훈 목사에게 집회를 위한 종교비자를 허가해 준 것은 한국인에게선 초유의 일이다.

성공적인 집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가 앞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밝혔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박헌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김성민 담임목사</p> <p>나성한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p> <p>금요일새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영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9:30</p> <p>찬양-남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김수철 담임목사</p> <p>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9:30</p> <p>최운형 담임목사</p> <p>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 388-2105</p>
<p>박승부 장로 1712구로성생출 현재3기수료생 양성중 -수기서로의료선교사 양성 -아름아나기유안으로 순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료</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뒤)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너지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김혜성 담임목사</p> <p>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진.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20(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 213) 739-0403
F. 213) 402-5136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청년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청년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우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청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부 금요일예배 오후 8:00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청년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청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교회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 예배 오전 11: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제자훈련 (수) 오후 8:00
중보기도 (목) 오후 7:30
성령집회 (금) 오후 8:00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그리스도인 일치 주간 시작... 印 달리트를 위하여

“카스트제도와 인종차별, 교회 일치에 심각한 도전”

최근 세계교회협의회(WCC), 교회일치촉진평의회(PCPCU) 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 시작됐다. 기도문은 인도학생기독교운동(SCMI)이 초안을 만들었으며, 인도교회협의회(NCCI)와 인도가톨릭대학교연맹에서 완성했다.

올해 기도 주간의 주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일부 영감을 얻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 사회와 일부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열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가촉천민으로 불리기도 하는 '달리트'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 기독교인들의 80%가 이 달리트 출신이다. 기도문에 의하면 "인도 교회들은 21세기에 들어 눈에 띄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물려받은 교리적인 분열에 따라 나뉜 채로 있다"며 "인도 교회들 안에 있는 불화는 카스트제도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민족주의 등이 교회들 간의 일치에 심각한 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 "오늘날 인도의 상황은 미가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와 같다. 선지자는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인들 역시 반드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공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처치투게더의 카를로스 말라브(Carlos Malavé) 사무총장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화합의 역사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주

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공통분모에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른 그룹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살피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차이점에 대한 더 깊은 공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교회와 개인들이 종종 교리적·도덕적·윤리적인 차이점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배타주의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 배타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이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나는 기독교 기도 주간이 '우리는 스스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배타주의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교회일치촉진평의회 대표 스위스 커트 코(Kurt Koch) 추기경은 최근 바티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들간 화합을 구하는 것이 일부 환상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관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전통인 연합-하나의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일치를 구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북한 억류된 케네스 배 씨 최대 사형 구형될 듯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 한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사형 혹은 무기한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측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미루어 볼 때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보통 체제 비난 혹은 전복 의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명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역시 시민권자이자 한인인 에디 전(한국명 전용수) 목사도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다 억류됐으나 미국의 적극적 요청 끝에 구명됐다. 당시 북한은 전 목사의

죄목을 반공화국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반대로 김동식 목사의 경우도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결국 북한에 의해 고문 당하고 굶어 순교했다.

배 씨는 북한에 고아원을 짓고 빵 공장을 후원하며 북한과 상당히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관광사업도 했던 그는 국경 지역에서 일명, 꽃제비라 불리는 탈북 고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촬영했다 북한의 미움을 샀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과 배 씨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배 씨를 북미양자회담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美 국제종교자유위, 신앙 때문에 사형될 목사 석방 촉구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약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이드 아브디니(Saeed Abedini) 목사가 다음주로 예정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 요구에 동참했다.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위원장은 "이란의 안보기관에서 주장하는 아브디니 목사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혐의의 실제적인 이유를 가장하기 위한 이란 정부의 전형적인 술수"라고 주장했다.

32세 이란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아브디니 목사는 20세 때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의 아내 나흐메와 만나 결혼했다. 이후 지하교회를 돕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등 자선 사업을 하면서 이란 당국의 표적이 되어왔다.

아브디니 목사의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미국의법과정의센터(America Center for Law and Justice, 이하 ACLJ)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

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디니 목사와 다른 많은 신앙인들이 애매한 혐의로 투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리리 국무장관이 개인적으로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언급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에 약 100,000명의 사람들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크리스천포스트는 12일 아브디니 목사가, 아내 나흐메(Naghme)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편지에서 "하루는 심문을 받으며 맞아서 매우 고통스럽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은 내게 사탕을 주면서 매우 잘 대해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브디니 목사는 이같은 핍박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고 증거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련 중인 강철과 같아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뜨겁고 차가운 힘겨운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연단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서 나아가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핍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밤낮 구별 없이 120일 동안 형광등이 들어오는 방에서 지내면서, 1주일이 몇 초 동안 태양빛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슬에 매여서 죽어가는 세계에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적었다.

오픈도어스 “북한, 최근 지하교회 성도 총살”

수용소 끌려간 뒤 고문과 중노동에 시달리다 참변



지하교회 성도들이 희미한 손전등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RFA 사진제공>

얼마 전 기독교 박해순위를 발표했던 국제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북한 기독교인 2명이 최근 당국의 박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오픈도어스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공보관은 “지난달에서 이번달 사이 북한에서 기독교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북-중 국경지대 등 여러 소식통에서 확인했다”며 “둘 중 한 명은 성경공부를 하러 중국으로 가다 경비에 발각돼 총살당했고,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 최근 사

망했다”고 전했다. 중국으로 가다 총살당한 이 기독교인은 최초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6개월간 일거리를 찾다 오픈도어스 팀을 만나면서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한다. 이 기독교인은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러 중국으로 가다 참변을 당했다.

수용소에서 순교한 또다른 기독교인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후 8개월간 성경공부를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국에 신앙을 가진 사실이 발각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고문과 중노동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

다이크스트라 공보관은 “이들 외에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 순교하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며 “그러나 고립된 곳에 수감돼 있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스는 북한 내 지하교회인 수를 20~40만명 정도로, 이들 중 신앙 때문에 수용소 생활 중인 신자를 5~7만명 정도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집트 새 선거법, 기독교인들의 참여 제한”

현지 진보단체들

이슬람의 정치 장악 시도 비판

이집트의 진보단체인 ‘변화를 위한 전국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Change, NAC)’과 북이집트 민야(Minya)의 ‘케파야(Kefaya) 운동’을 중재하고 있는 셰리프 엘 움다(Sherif el-Omda)는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의회에서 제정할 새로운 법령이 이슬람 정치인들에게 의회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쿠파트교도, 소수 의원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는 드물 것”이라고 비판했다.

움다는 MC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 정책의 관점에서, 최근 이슬람 의원들은 과거 무바라크 시대와 결별을 시작했다”며 “이들의 목표는 무슬림형제단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바라크는 30년 만에 신뢰를 잃었으나, 무르시 대통령은 200일 만에 신뢰를 잃었다. 이는 경제를 비롯한 이집트 국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식량, 자유, 사회적인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살인범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혐의자들이 풀려난, 어이없는 재판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움다는 “무르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집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가 공약을 분명하고 정치하게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족구국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과 야당 세력이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위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무르시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실행될 수 있는 확실한 청사진을 보일 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움다는 무함메드 마흐무드 거리(Mohamed Mahmoud Street), 마스페로, 의회 거리에서 벌어진 이집트인들의 유혈 사태에 연루된 과거 군 정부 소속 의원들의 재판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월 25일 거리에 나선 시위 세력과, 무바라크 정권 붕괴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순교자와 같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권을 차지하려는 무슬림형제단의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집트 전역에서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의 퇴진 및 정치·경제 개혁을 요구하며 3만여명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날로,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은 시위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좌에서 물러났다.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해고된 英 여성,社측 상대 승소

유럽인권재판소 “사측 유니폼 조항보다 개인의 종교 자유 우선”

근무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회사측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개인이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영국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에서 입국 수속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나디아 이웨이다(Nadia Eweida·60)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거나 하지 말라”는 사측의 지시를 어긴 후 지난 2006년 회사에서 쫓겨났다.

사측인 브리티시에어라인(British Airlines)은 “십자가 목걸이 착용이 회사의 유니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국 대법원과 상소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인 인권을 인정하면서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웨이다 측 변호사는 항공사의 조치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9조, 제14조와 상충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공표된 이번 판결은 “이웨이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국 항공사측이 회사의 특정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웨이다의 십자가 목걸이는 신중할 것이고, 그녀의 전문적인 외모를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승인된 히잡이나 터번 등과 같은 종교적인 아이템 착용이 영국 항공사의 브랜드 혹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도네시아, 홍수로 약 25만명 이상이 피해 입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인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25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재난완화기구에 따르면, 지대가 낮은 곳에서 약 1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통령령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일부 시내까지 침수된 상태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가전사, 의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약 21명에 이른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스캇 A. 마르시엘(Scott A. Mar-

ciel) 美 대사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재난지원 본부는 홍수 희생자들에게 약 150,000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간수도운영업체인 PAM은 홍수로 인해 저장소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약 250,000명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자들은 당국의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주지사는 구호자금의 현장 전달이 늦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노동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오전5시30분 **배명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토)오전6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찬양

로렘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714-956-7640 F.714-956-7909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해, 너는 응답한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949)654-0191

신현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562) 860-5451 / ilovec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관용과 인내를 배우는 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 치유예배 목요일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프로모션 A 세일기간: 1월 31일까지

프로모션 B 세일기간: 1월 31일까지

프로모션 C 세일기간: 1월 31일까지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100%
환불 보장**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구연산을 사랑입니다.- 보은사례 운동 안내

HQ구연산으로 모든 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HQ구연산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병을 구입하기에도 힘든신
우리들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께 매달 100병을 한 병씩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에 동참해 주신다면 세상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린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약은 일제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와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판을
다 뜯어내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용연구소 수료
응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 국제제자훈련원 | 288쪽

이 책은 급변하는 현대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등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차별성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다양한 신학적 사색을 맛볼 수 있다.



목적의 예언자

제프리 웰러 | 요단 펄럼 | 370쪽

이 책은 릭 위렌이 걸어온 길과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들, 또 그가 당한 시련을 포함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을 다룬다. 한 사람의 신앙과 비전 뿐만 아니라 피와 살을 지닌 한 인간의 약점까지 그린 은밀한 초상을 보여준다.



신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헤롤드 그린리 | CLC 펄럼 | 208쪽

이 책은 성경 본문 비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본문 비평에 사용되는 사본들을 정리해준다. 책에서 저자는 사본들을 체계화 시킨 여러 편집들도 소개하면서 동시에 풍성한 연구 사례의 모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시편의 교회

이성희 | 한국장로교출판사 | 240쪽

이 책은 교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시편에 나타난 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 그 해답을 찾았음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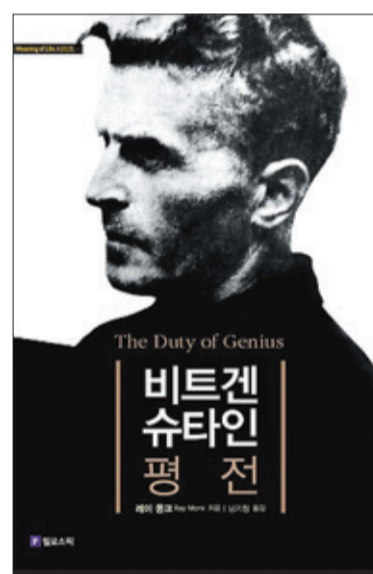
철학을 '살아내려' 고군분투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평전〉, 12년만에 개역판 출간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철학자로 꼽히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평전이 12년만에 개역판으로 출간됐다. 난해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꼼꼼히 재구성해낸 전기 문학의 결과로 평가받는 이 책은, 실제로 엄격하고 딱딱한 그의 철학과는 다르게 흥미진진한 삶을 산 그의 인생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은 많지만 그의 생애를 모른 채 그의 철학만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그의 삶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것은 불행한 일처럼 보인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는 철학을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학과 자신의 삶

을 일치시키려 분투했던 비트겐슈타인을 담아내기 위함이다. 책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철학만을 연구하거나, 그의 흥미로운 생애에 매력은 느끼지만 난해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둘 사이의 틈을 메워준다. "열정적이고, 심오하며, 강렬하고, 지배적인, 전통적 천재상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라고 스승 러셀이 평가했던 비트겐슈타인이지만, 신동으로 불리는 형제들 속에서 네 살까지 말도 못한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 자신이 이 세상의 '잉여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살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괴로워하던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천재적 재능을 지녔

다는 사실을 러셀에게 확인받은 뒤에야 비로소 자살 충동을 극복한다. 이때부터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미치거나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만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강도 높은 사유로써 철학 연구에 전념한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단지 자신의 철학을 말로 하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대로 살아가기 위해 평생에 걸쳐 삶과 철학을 일치시키려 분투한 철학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윤리학과 미학은 하나"라는 자신의 명제처럼 그야말로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 아니라 이유도 엄청난 유산을 포기했고, 1차 대전은 자원하여 참전했다. 또 2차 대전 때는 전쟁 환자를 돌



비트겐슈타인 평전: 천재의 의무 레이 몽크 저/남기창 역 | 필로소픽 | 904쪽

보는 병원에서 일했다. 자신의 허영심을 버리기 위해 자신이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들을 글로 써서 여러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수십 년 전 체벌한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 참회하기도 했다. 철학자 박이문 교수가 비트겐슈타인을 두고 '정신적 귀족'이라 평한 것도 이러한 그의 '완벽을 추구하는' 윤리의식 때문이다. 책의 저자인 몽크 교수는 비트겐슈타인의 모든 것을 일기와 서신 등 방대한 자료와 현지답사,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진감 넘치게 재구성했다. 몽크 교수는 1990년 전기문학의 결과로까지 평가받은 이 책 덕분에 35세 이하 영국 작가가 쓴 최고의 작품에 주는 '존 루엘린 라이선스'를 받기도 했다. 김은애 기자

기독교일보
창간9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감기약!!
증상별, 특별 조제처방!!
(5일분 \$35)

약력: 복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한의원)

Adipo-ECO 고주파 치료기!!

- 원리 - 인체에 고주파 전류를 가하면 생체 세포내에서 분극(Polarization) 운동에 의해 생체열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생체열에너지는 자가 면역력의 증가와 자가 치유력을 활성화 시키며 혈액 및 림프액 순환의 촉진과 산소공급을 극대화 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며, 내장지방을 감소하여 심혈관, 폐, 간, 위장 질환을 개선한다.
- Adipo-ECO를 이용한 치료법은 운동을 통해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를 구현하여 요요현상 없이 내장지방과 체지방을 감소시켜 바디라인을 변화시킵니다.
- Adipo-ECO는 기존의 장비와 이렇게 다릅니다.
 - * 심부열을 이용한 시술로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 * 신체 방어기전 향상 및 자가 치유력을 증진 시킵니다.
 - * 혈액 및 림프액 순환의 촉진과 산소공급을 극대화 시킵니다.
 - * 세균 및 독소의 살균작용을 합니다.
 - * 피부 재생력 및 섬유 조직의 신장력을 증가 시킵니다.
 - * 세포의 기능을 증진 시킵니다.

Adipo 통증클리닉

어깨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염

- 종풍 • 손발저림
- 대상포진 • 좌골신경통
- 만성 두통, 편두통
- 척추측만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 통증을 제거한다!!)
- (어혈을 제거하여 통증을 없앤다!!)
- (막힌 경락을 풀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내과질환 (어린이상장양)

- 감기
- 당뇨병 • 고혈압 • 심장병
- 만성위염, 위궤양
- 만성천식(선천성 혹은 알러지성)
- 만성설사
- 방광염 • 요실금 • 우울증

부인과 질환

- 갱년기 종합증 증상 개선 (여성 호르몬 밸런스 교정)
- 산후 우울증, 불임
- 월경통, 월경불순, 냉대하

한방 성형

- 미용침 (새빛 테크닉)
- 얼굴성형: 미간 주름, 팔자 주름, 이마주름개선, 안면리프팅
- 바디성형: 내장지방제거, 체지방감소 부분바디성형(복부,허벅지,팔)

(교통사고/산재보험/여행자보험 :스마트폰검색가능)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하바드)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새해”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계사년을 한국의 간지로는 뱀띠 해라 한다. 무지한 탓인지 오십대 중반의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뱀띠가 있구나 하고 의아했다. 십이 간지 중에 하나면 열두 명 중에 한 명은 뱀띠라는 말인데 나만 해도 다섯 형제 그 외 지금까지 사귀어온 많은 친구들 중에 스스로 뱀띠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는 까닭이다.

뱀이라는 띠의 상징이 썩 좋지 않은 까닭에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까닭일까? 어쨌든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도 새해를 맞아 뱀의 좋은 점을 홍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약간은 공색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상으로 지어놓은 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새해 2013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요,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기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 새해를 맞는 기분이 예년에 비해 훨씬 기대가 많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몰아치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록적인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했다. 경기침체의 여파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회마다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까지 이른 교회들도 더러 있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기간 중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내을 수 있

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는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금년을 기점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워낙 오랜 경기침체인 터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합부로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사정인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무엇인가 변화의 기운이 보인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으로도 금년 한 해는 무엇인가 바닥으로부터 서서히 솟아오르는 느낌이 있다. 금년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삼세대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과연 어린 아이들까지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첫 새벽 기도회에는 그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어린 자녀들이 출석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 어찌 흥보가 잘 됐는지 일곱 살짜리 우리 막내까지 새벽기도에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아는 한 금년도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두 살 어린 아이부터 구십 노인까지 함께 참여했고 전체적으로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올 한 해는 새로운 부흥의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통(靈通)하면 물통(物通) 즉 언제나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에 우선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비록 아직 손에 잡히는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아울러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금년 한 해는 먼저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보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 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인교회 담임

“그 사람 이중인격자야” “그 이는 천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야” “겉보기와 행동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한 썬터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사람에게에는 가능하다.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말씀을 읽다 놀랐다. 한 농부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는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대목이

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겐 큰 충격이었다. 그 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알았다. 그 책에 등장하는 의사 지킬 박사는 인지하고 친절하며 병을 잘 고쳐주는 천사같은 사람이고, 반면 잔인하고 살인적인 악마 짓을 하는 하이드씨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한 사람에서 극과 극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다가 안 사실이다.

나는 보았다. 머리가 희도록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모 교수가 총장으로 임후보하면서 상대후보의 정보를 그릇되게 흘려 매장시키고 자신은 총장이 됐다.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천박한 사기꾼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착한 성격을 가진 최 집사에게 시험이 왔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 부인 이 집사와의 관계다. 어느날 최 집사는 이 집사의 진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었

다. 자기는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이다. 남편 장로는 사기성이 농후하고 집에서는 독재자로 군림하며 교회에 와서는 성인 군자같이 행동하는데 정말 바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집사는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어느날 최 집사는 금식기도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혼하고 애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충격은 나의 이성을 잃은 현실 도피식 마귀의 장난이다. 이 뒷에서 빨리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다 더 사랑하며 이 집사를 만나지 말자 하고는 아내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났다. 성자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한 나와 나쁜 내가 사사건건 싸우는데 너무도 괴롭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가! 보통 인간들이야 오죽할까! 문제는 욕심덩어리인 내가 이기면 나는 죽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기면 나는 사는 것이다. 그 갈등은 일생 동안 따르는 필요약이다.

신앙의 힘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담임

오는 세월 못 막고, 가는 세월 못 잡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 다. “영원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배하는 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결국엔 소멸합니다. 시간이 할퀴고 간 자리는 주름살이 되고, 그가 남긴 발자국은 검버섯이 됩니다. 맑고 영롱한 아이들의 눈은 어느새 뿌연 먼지로 백대 킨 희미한 가로등이 되어 버립니다. 단단한 말근육을 자랑하던 두 다리는 이제 항상

지진에 시달리는 떨리는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시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핏대를 세우며 “내가 이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고 혈기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내가 잘못 봤나?”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설레설레 머리 도리질을 하게 됩니다.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사자후를 뽐던 칼진 목소리도 이제는 다른 곳을 쳐다보며 “들은 듯합니다!” 말꼬리를 흐리는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버 렸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열변을 토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여!” 입맛을 다시며 능청을 떠는 개똥철학자로 변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세밀이 가까워 올수록 항상 무지막지한 시간의 무게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폭군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겉사람은 시간 앞에서 무기력하

게 무너지지만, 속사람은 항상 영원한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동경하기에 사람은 여전히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에 신앙인들은 시간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치 앨봄”(Mitch Alcom)이 지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 중에 ‘작은 파도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한 작은 파도가 자기 앞에 있던 다른 파도들이 해변에 닿아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끔찍한데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저렇게 부서지고 마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파도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게 아냐. 우리는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영원’의 세상에서 다시 뵈게 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이 주는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미주목자교회 설립예배

목자교회는

-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마16:18)를 지향하며 '원로'들을 위한 미주 '목자교회'를 설립합니다.
- 로스앤젤레스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최초의 목자교회가 탄생합니다.
- 원로 목사님들, 원로 선교사님들, 원로 전도사님들,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무임 사역자들중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편치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목자교회'로 오셔서 동역자로써 출발을 해 주십시오. 새 사역에 새 힘이 채워 집니다
- 원로(부모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순리이며 성경의신(5:27) 가르침입니다
-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사역에 자원 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일시 : 2013년 2월 3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3407 W. 6th Street #806 Los Angeles, CA 90020 (코리아타운 6가와 카탈리나 로얄 플라자 빌딩 8층 목자교회/은혜승리교회)
- 문의 : (213) 590-9191, (323) 257-2614

새출발 부흥성회

- 일시 : 2013. 2월 1일 ~ 3일(매일 밤7:30분, 오전10시(토) 주일 낮 11시, 오후 3시)
- 장소 : 목자교회 (코리아타운 6가와 카탈리나 로얄 플라자 빌딩 8층)
- 강사 : 박천일 목사 (한국 CTS TV 목자교회, 오륜 목자교회 담임)

- 충신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 한기총 총무 역임 / CTS tv 법인이사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MIN.)
-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HL.D.)
- 호주 Jubily Theological Seminary(Dr, 종교교육학)
- NorthWest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
- KAZAK University(Ph.D)
- 35년간 대학교수 역임 / 52권 저서 출간



운전이 불편한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 올 밴(7,15인승)이 필요합니다. 목자교회 이름의 차량을 기증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제6회〉 요한복음 1장

유동근
한국은누리선교교회목사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보라! 요한은 보라고 외쳤다. 신약에서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한 번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피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높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이시다. 결국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또한 영접하는 것이다.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는 뜻의 헬리어 ‘하이론’이라는 말은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는다’고 할 때와 같은 말이다. ‘치워버린다’는 뜻도 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치워버리고 옮겨버리려고 오셨다.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의 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영원히 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고 가셨음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차를 탄 할머니가 보따리를 메고 내려놓지 않는 것과 같다. “아유, 공짜로 기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 짐은 내가 져야지!”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내 짐은 내가 져야지 한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외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내 모든 죄 짐을 지고 가신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는 것이다.

이사야 2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하신 일은 부끄럽고 흉악하고 더러우며 말로 하기 힘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다.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그 진수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 햇수를 자랑하지 마라. 10년, 20년을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아, 성경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가르쳐 주는구나’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했다고 믿는가?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갔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어야 맞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죄 사함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야 맞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습시다. 내 죄는 다 골고다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레위기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이는 다 예표로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다. 그 말씀에 보면 죄를 지는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한 후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리게 되어 있다. 안수란 동일시를 의미하는 일인데(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이 하나됨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라고 한다. 그분은 육신

을 입고 오셨을 때 당신과 나의 죄가 되신 것이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당신과 나의 죄를 지러 오셨다.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이다. 사람의 일생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고 정죄하는 죄는 몇 가지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무수한 죄안(罪案)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그 모든 것에 의해 괴롭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범죄 박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수많은 죄를 기억하며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아는 죄, 우리를 정죄하는 죄는 한 두가지 일 것이다. 주 예수당시에 치료를 위해 온 병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병을 종합병원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다. 문동병이면 문동병, 중풍병이면 중풍병, 소경이면 소경, 주 예수님은 그들의 일생 때여 고생하는 한 두가지 병에서 그들을 놓여 자유케 하신 것이다.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결혼을 한 부정한 여인이다. 거의 창기 수준이 아니던가? 그 부분에서 그녀는 전문적인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죄는 그녀를 매우 무겁게 하고 그녀의 인생을 황폐하게 하였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한 죄인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가면서도 돈이라면 벌어들였다. 그런 죄들은 그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고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목마름을 금할 길이 없게 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일생 범한 죄악 중 늘 꺼림직하고 불안하며 특별히 정죄감을 주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 두가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한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모름 임신, 낙태, 유산... 이것은 어쩌면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에 맞먹는 죄들이다. 나는 여러분 중 한 번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며 정죄감에 한 번도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때나 군대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사정없이 두들겨팼 것도 있고, 술집을 전전하며 수많은 부정과 방탕을 일삼은 것, 남의 천금같은 돈을 떼어 먹은 것, 물건이나 책을 빌리고 안 돌려준 것 등 크고 작은 죄들은 생각할수록 우리의 양심을 고소하는 죄들이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갈진대 그 양심은 여러분을 정죄하며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당신의 바로 그 특정한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며 운명하신 것을 깊이 묵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골고다의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바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스스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짐을 지어 주러 오신 구주이기 때문이다. 또 예수는 여러분과 우리의 죄악을 홀로 지고 가신 구주시다(요1:29).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예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수치스런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가 가신 것이다.

오! 진리란 무엇이며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역사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즉, 속죄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납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우리의 속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다음 호에 계속〉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교과와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선교교회 담임목사, 美 퍼시픽 신학대학원 교수, 국제선교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태·마가·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초청장

계사년(2013년)세해를 맞이하여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지고 가정과 사업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 유공자 공법 단체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베트남 참전 미 서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공법단체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베트남 참전 미 서부 연합회

이임 회장 5대 박정호
취임 회장 6대 박인곤



• 일시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 11:00

• 장소 : LA 신북경

31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388-3042

• 참석대상 : 1.베트남 참전 국가 유공자회원
2. LA지역 한인 유관기관, 단체장 및 초청된 인사

RSVP : (213)700-0222 (213)245-8178 (213)245-8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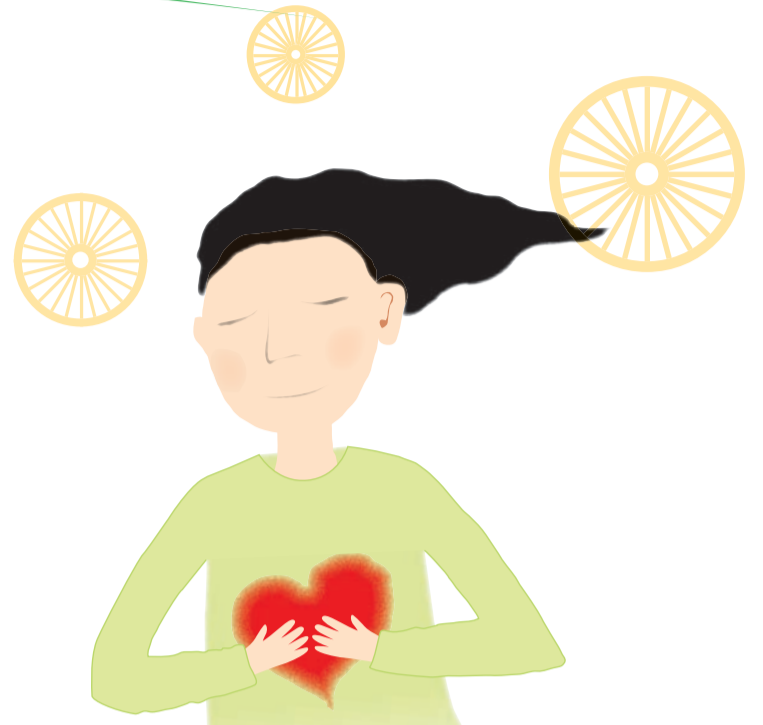
카페: http://cafe.daum.net/vwvusa(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미국 연합회)



HEALTH & LIFE

숨겨진 슬픔을 치유해야 성숙해집니다

슬픔을 토닥거리 줄 치유자를 찾아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마 한 일곱살 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슬픈 장면을 봐도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 집사람이 그런 저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빈정거리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른 사람들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해도 아무런 공감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큰 애로 사항이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감정을 억압하다보니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하기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축복입니다. 반면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병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압해 놓은 이유는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하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내면을 침투해 들어오는 수치심, 분노, 불안, 외로움, 무시당하는 느낌, 비난받는 느낌, 깊은 상실감,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휘저으며 존재감을 상실하게 할 만큼의 위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투쟁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페르조나(persona)를 두껍게 덧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은 나의 페르조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며 대합니다. 그러다 어느덧 나 또한 페르조나에 갇힌 나를 진짜 나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한 억압된 감정 중에서도 슬픔의 감정은 매우 깊은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할 부정적 정서입니다. 슬픔을 승화시키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이 변질된 무수한 파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지 알

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극심하게 느껴왔던 고통스러운 슬픔의 기억을 억압합니다. 슬픔 자체 보다는 슬픔 이면에서 파편화된 또다른 감정들이 무수히 공격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또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자신이 함몰되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메커니즘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불안정한 견고함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슬픔을 슬퍼하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숨겨진 감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감정들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감추어둔 자신의 숨겨진 감정을 찾아 치유의 여정을 걷다보면 하나씩 부딪히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불에 덴 듯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신속히 치유가 됩니다.

슬픔의 치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치유는 비슷한 경험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공감적 경험’을 받게 될 때 일어납니다.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의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공감은 우리의 숨막히는 불안을 잠재우고 숨통을 트워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도 공감적 태도와 경험입니다. 때로는 상담자 자신이 자신의 슬픔에 관한 경험을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깊은 공감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되짚어보는 힘을 얻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픔을 슬퍼하지 못할 때 분노가 쌓이고 우울이 깊어지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은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찢어놓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어디선가 막연하게 올라올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의 우울 무드로 내려가는 양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슬픔이 병이 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성숙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어린아이를 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재된 깊은 슬픔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능력을 퇴색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원히 심리적 유아기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 자기 내면의 슬픔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면 인간의 온갖 슬픔을 온 몸으로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척 하지 말고 온 몸과 영혼에 묻은 누추한 슬픔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요히 치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함께 심리적·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원장

조각글

사색당쟁에 교회가 망한다



이정근 목사
미주성결대 명예총장

임진왜란(1592-1598)은 한국 역사에 있어 큰 수적이지 아픔이었습니다. 일본에게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쳐갔던요. 그런데 이러한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그 힘을 나라 밖으로 쏟아부어 되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도 힘이 남으면 다른 애들에게 싸움을 걸거든요. 그러나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은 바로 이씨조선에 있었다고 역사는 진단합니다.

다. 특히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일본이 조선반도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관을 하고 방심했던 탓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오관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씨조선을 망친 당파싸움 때문입니다. 조선 정부는 두 해 전에 일본에 외교단을 보내 일본의 뜻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황윤길은 일본이 전쟁준비에 열중하고 있으니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부대표 김성일은 전혀 반대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전쟁할 기미가 아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신하들은 김성일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황윤길은 야당인 서인에 속했고 김성일은 여당인 동인에 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색당파,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독약입니다. 임진왜란 17년 전에 신하들 간에 동인과 서인이라는 당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서인

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사색당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인은 또 대북과 소북으로 분당했고, 이는 이씨조선이 폭삭 망할 때까지 340년간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다 또 일본에 지배당하는 모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1천여년 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로 쪼개졌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루터파, 칼뱅파, 성공회파, 재세례파 등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그 사색당쟁의 정도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사렛, 구세군이라는 교단만 해도 어지러운데 그건 또 약회도 두 개로 갈라졌지만 장로교는 그 교단이 2백개를 넘어간답니다. 사색당파가 아니라 이삼백개 당파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연합기구들조차 사쟁당파식이 되었

습니다. WCC와 WEA, NCC와 NA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뭐라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어지럽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수정당제를 두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색당쟁도 잘만 운용했으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복수교파제도도 교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그만 이익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데 있습니다. 이씨조선 사색당쟁의 깊은 원인은 벼슬 희망자는 많은데 자리가 적어 취직경쟁이랍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취직 걱정이 없는데도 싸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저토록 많은데 왜 목사가 취업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싸움질만 안 해도 저절로 부흥될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의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교회분쟁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던져 교회를 창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생활한의학



티트리

티트리 오일은 ‘소염작용’ 하면 바로 떠올리는 아로마가 되었습니다. 호주가 원산지요. 호주 원주민들은 티트리를 약처럼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면역도 안정화시키고, 백혈구 자체에 작용하는 효과도 연구되었다고 하네요.

여드름같은 염증성 피부에도 사용하고, 감염된 상처, 비염이나 천식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에 쓰는 연고를 만들 때 티트리 오일을 응용하는데요. 비염 연고가 효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천연 오일들을 잘 혼합해서 만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p>ELANTRA COUPE GS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450 Total drive off: \$6,450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89 per month plus tax</p>	<p>SANTA FE SPORT FWD 2.0T 2013 3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950 Other Rebates: \$500 Total drive off: \$7,450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ONATA HYBRID 2013 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6,075 Other Rebates: \$2,500 Total drive off: \$8,575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198 per month plus tax</p>	<p>ACCENT GS 2013 3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 \$5,865 Other Rebates: \$500 Total drive off: \$6,365 Security Deposit: \$0 TERM: 36 Miles per Year: 12,000 Cents a mile in excess: 20</p> <p>Lease \$79 per month plus tax</p>
<p>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p>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p> <p>Tel. 888.409.3002</p> <p>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p>	

COVER STORY

성경 속 장발장과 자베르, <레미제라블>의 '용서와 혁명'



진정한 혁명은... 용서받은 자들의 '사랑과 용서' 통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 19년간 감옥에서 노역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에게 잡자리와 먹을 것을 베풀어 준 주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의 은식기를 훔쳐 수도원에서 달아나다.

얼마 못 가 경찰에 잡힌 그는 이를 선물받았다고 거짓말해 확인차 수도원으로 끌려오고, 주교는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느냐"며 은촛대를 건넨다. 주교의 거둬진 사랑은 지난 삶을 뉘우치게 했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자베르와 장발장'에서 떠오르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경 인물들

"나의 형제 장발장, 그대는 이제 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둔 생각과 과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장발장은 실제로 그렇게 됐다. 버려진 갈았던 이전의 삶을 이만큼까지 바꾸면서 청산하고, 8년 후 시종에게까지 올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가석방 상태에서 사라진 장발장을 계속 뒤쫓는 이는 자베르 경감. 감옥에서 태어난 그

는 '주님의 뜻'을 좇아 정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지만,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 믿는 그에게는 정작 주님의 뜻이 품고 있는 '사랑과 자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자베르와 장발장은 마치 '율법과 복음', '죄책감과 은혜'처럼 쫓고 쫓기는 관계다. 둘은 마치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향유옥함을 붓는 마리아'가 연상되는 판틴, 판틴의 딸 코제트, 성인이 된 코제트와 사랑에 빠진 마리우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친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용서받은 탕자와 불평하는 그의 형, 마태복음 21장의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과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아니한 첫째 아들 등도 오버랩된다. 장발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전파하고 직접 삶으로 보이신 '베풀과 용서'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용서받은 그는 자신과 같은 주변의 '레미제라블'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도우며, 살려준다. 그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용서함을 받은 후 자신의 삶을 그 분께 드린다. 그가 데려다 키우는 판틴의 딸 코제트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다.

장발장은 그러나 계속해서 자베르의 그림자에 쫓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받은 자'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직 씻어야 할 죄'가 있는 듯 행동하는 것처럼. 그는 선하고 매력적인 인물이 됐지만, 과거의 유산 때문에 계속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결국 마지막 자베르와의 만남에서 이를 극복해낸다.

자베르는 '몽학선생'과도 같은 율법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신이

뒤쫓던 장발장은 그를 여러 번 구해줬지만, 그는 이 '사랑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자베르는 "바위 같이 단단한 신념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와 나는 세상에 공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가 오늘 내 목숨을 살려 줌으로써, 내 영혼까지 죽었다"고 판단한다. 그런 그에게 장발장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너 같은 죄인일 뿐이다. 하지만 장발장은 주교를 통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Who am I)'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장발장의 결말은 마치 예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져 버리는 가롯 유다와 겹쳐진다.

'베풀과 용서' 통해 변화된 장발장... 우리의 '배제와 포용'은

'용서'라는 문제는 극한 상황에서 더 극적일 수 있다.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 청소'라는 아픔을 겪고 목격하며 '용서'의 문제를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고민했던 크로아티아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도 <베풀과 용서(복 있는 사람)>에서 장발장과 자베르 이야기를 다룬다.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어 선행에 힘쓴다. 그는 자베르 경감의 목숨을 살려주기까지 한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범죄자로 의심하여 감옥에 넣으려던 자였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용서한다. 주교의 베풀과 용서를 통해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장발장에게 임한 신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베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용서를 경험했다 해서 누구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베르는 용서받고 나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에게 얽어맨 규정이 그를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용서를 거부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절대적인 정의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볼프는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IVP)>을 통해 이같은 생각을 신학적으로 더 깊이 전개하기도 했다. 강영안 교수(서강대)는 이 책의 해설을 통해 "눈앞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근대 철학·정치적 프로그램은 실패했으며, 포스트모던 정치철학도 대안이 아닌 지점에서 볼프의 신학은 출발한다"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제자로서 그를 닮고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 함의를 가득 담아 풀어간다"고 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을 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는 쉽지 않다. 여기에 '엄격한 보상적 정의'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마저 억눌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인 고통'을 통해 악인까지도 받아줄 수 있다. 그럼에도 용서만으로는 화해와 평화가 발생하지 않고, 포용

(Embrace)이 필요하다. 볼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원수와 악인의 포용을 보여주는 전형적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기'가 필요하다.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때, 옛 것이 다 지나가고 그것에 대한 기억까지 폐기될 때에야 비로소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희생자의 호소는 어떻게 되는가? "아직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르지 않았기에",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기억해야 한다. 적어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사랑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장발장처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 또한 여기에 있다. 최근 한국교회는 '원손 모르게 하던 일'을 '원손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일'에 부쩍 힘을 써 왔지만,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하게 남기고 간 '사랑의 힘'을 믿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게 먼저 아닐까. 위고의 말처럼, "인간의 최고 의무는 타인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대웅 기자



볼프의 저서 <베풀과 용서>, <배제와 포용>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리앤드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관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0 (특별 할인) - 양쪽 앞선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월록,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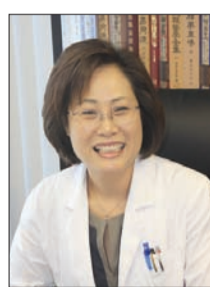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이은숙의 건강 이야기

감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은숙 원장
새빛한의원

감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의학은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감기 저절로 낫겠지!!! 그러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수도...!!!

매년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감기가 생명조차 위협한다. 올해도 이미 살인적인 독감이 동부로부터 시작하여 남부주에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독감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감 예방 주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 같다.

올 겨울의 감기는 대부분이 목의 통증을 호소한다. 첫 날부터 목이 부어오르면서 고열에 어지럽기까지 한 것이 특징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의 찬 기운에 대한 저항력은 떨어지게 되고 평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역시 밖으로부터 오는 찬 기운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며,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 외부의 찬 기운에 몸이 바로 적응하지 못하여 쉽게 감기에 걸리곤 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체력을 가진 상태에서 한 번 몸 안으로 들어온 감기 기운이 빠른 시일내로 회복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기로 인한 여러가지 후유증이 몸 안에 축적되게 된다.

유·청년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기로 인해 손상된 신장을 수년 또는 십여년 방치하여 어느날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지금 당장 후유증의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감기다.

감기로 인한 후유증은 신장 외에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1~3일 이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기! 차일피일 낫겠지 하면서

4-5일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코와 입 그리고 피부를 통하여 들어온 가벼운 감기가 곧바로 폐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직중) 심한 기침을 일으키면서 밤잠을 못 자게 하며 열까지 오르면서 폐렴과 기관지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천식 혹은 비염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평소 감기에 걸리면 어쩌나 하며 전전긍긍하는 마음가짐 또한 좋지 않다. 몸은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다. 정신이 강하면 몸도 그에 맞추어 나가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감기란 아무리 심하게 왔다 하더라도 증상에 맞는 약을 바로(당일) 복용하게 되면 단 하루만에 감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몸이 가벼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감기, 쉬면 좋아지겠지!”

물론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간의 적절한 약의 복용과 단 하루만의 휴식이다.

감기란 아무리 심하게 왔다 하더라도 증상에 맞는 약을 바로(당일) 복용하게 되면 단 하루만에 감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몸이 가벼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감기, 쉬면 좋아지겠지!”

물론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간의 적절한 약의 복용과 단 하루만의 휴식이다.

■ 감기와 항생제 복용

항생제는 감기가 여러 날 진행되어 세균성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축농증) 등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언제 사 두었는지도 모르는 항생제를 자가 진단을 통해 남용한다.

감기라면 항 바이러스제가 필요한 것인지 항생제를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한방으로 보는 '감기'

감기 초반에는 찬 기운이 가볍게 피부를 통하여 몸의 내부로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감기 바이러스는 피부에 1-2일간 잠적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폐를 손상시킨다. 열이 유독 심한 감기는 정기와 사기가 체표에서 서로 이겨 보겠다고 극렬히 전쟁을 벌이는 경우다.

정기는 면역력이고 사기는 감기 바이러스다. 이때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기가 정기를 패배시키고 말 것이다. 그럼 열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피부를 살짝 열어 열이 밖으로 슬그머니 빠져 나가도록 하여 뜨는 열을 가라앉힌다. 그러면 감기는 자연히 치료가 된다.

이 때 한방적 치료로는 체표를 살짝 열어주는 약에 그 체표를 열어줄 수 있는 힘을 올려주는 보폐(保肺) 즉 폐를 보해주는 약제와 약간의 정

열(淸熱)제를 써서 해기청열(解肌淸熱)하는 처방으로 감기를 치료한다.

노인성, 허약성 체질, 소아 감기는 언제 감기 기운이 몸의 내부로 들어왔는지 모르게 살면서 체내로 파고 들어 체내에 2-3일 머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초기 증상으로는 몸이 자꾸 으슬으슬하면서 찬 바람이 싫어지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다.

허약해서 오는 감기는 주 증상인 감기 치료에도 중요하지만 정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인삼을 약간 가감 처방하여도 그 치료 효과가 대단히 좋아 '인삼폐독산'을 주 처방으로 가감처방이 조제된다.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는 감기가 올 당시 몸이 비교적 찬 경우가 많다. 외부의 찬 기운을 이미 냉한 상태의 몸이 밀어내지 못하여 더욱 몸이 차가워지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는 것이다.

폐를 따뜻하게 하는 약제는 콧물이 멈추면서 기침을 하기 때문에 '거담해수제'를 가감하여 처방하면 효과적이다. 급성 유행성 독감은 고열을 동반하며 어지럽기까지 하고, 인후통과 등통기가 몹시 당기면서 사지 관절에 통증을 느끼며, 전신이 떨리면서 오한이 온다. 그럼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게 하겠는가?

옛말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도둑을 방망이로 때려 잡기보다는 오히려 도둑을 달래서 담장 넘어 내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감기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양방적 치료 방법은 방망이로 때려잡는 형식의 강한 약제로 감기를 다스리고 한방적 사고는 집안으로 들어온 도둑을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럼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람들은 거부하는 걸까?

그것은 인식과 사고의 차이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약을 먹고 나면 졸리고 기운이 쏙 가라앉는다. 하루 이틀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 운전사고를 경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감기만 오면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한다.

필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약제는 위와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기가 들어오는 기전을 한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옛날 할아버지들이 민간의학을 대상으로 민간요법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를 잡기 시

작한 의학이다. 특히 감기에 관한 한은 '상한론'이 가장 대표적인 저서이다. 1700여년 전에 쓰여진 분서에는 첫 장에 감기에 대한 기전과 그 처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후세인들이 이를 계속 연구하여 현재의 한의학이 한 학문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였으며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하버드, 존스홉킨스 대학 내에서도 끊임없이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1월 '사스' 즉 일종의 강한 감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 미국 등 각국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촉각을 세웠으며 엄청난 연구를 했다. 그 당시 필자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때였다. 중의사의 집중적인 연구로 결국 사스를 예방 할 수 있는 처방이 나왔다. 획기적인 연구였다.

'소시호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핵심적 예방 약제가 되어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약의 힘을 믿기 시작하였다. 한약은 자연약초의 성분을 그대로 처방하므로 복용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나쁘고 졸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감기약 복용 후에 따르는 후유증은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앞서 말한 한의학적 치료사에게서 입증되는 것이다. 도둑을 때려서 잡는 것이 아니고 달래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한방적 치료법이다.

최근 많지는 않으나 감기환자들이 찾아와 “이 약 먹으면 나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마음이 약간은 서늘해진다. 그 환자가 며칠 후 다른 환자를 다시 보낸다.

“하루만에 감기가 나아대요”

물론 모든 환자가 하루만에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빨리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은 볼 수가 있다. 심지어 감기로 양방병원을 1-2개월 다니다가 결국 한방을 찾은 환자가 기대도 하지 않고 내원했다가 의외로 빨리 완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양방 병원에 가서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서 “이 약 먹으면 나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한방보너스

* 오미자 : 오미자는 심폐기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기침,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치료에 한방에서 많이 사용한다. 기침

에션 평소애 차처럼 끓여서 약간의 꿀을 타 마시면 감기뿐 아니라 심폐 기능에도 좋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암 환자에게 오미자를 투여하여 간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의 혈액순환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반응성을 높여 뇌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 기능을 안정시켜 집중력을 높여 수험생에게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 외 도라지차, 생강차도 평소 자주 마시는 것이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감기일까? 알레르기일까?

우리나라 성인 5-6명 중 1명은 알레르기 질환이다. 하지만 심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알레르기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친다. 특히 알레르기 증상이 감기와 흡사해 감기로 오인을 하고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실제 알레르기 질환을 감기로 오인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30% 정도. 알레르기 천식과 비염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자신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레르기 천식이나 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감기증상과 흡사하게 나타난다. 감기처럼 재채기와 코막힘, 기침이 동반된다.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기 몸살처럼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며, 피로감이나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얼까지 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감기를 의심한다. 하지만 감기와 알레르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이 가렵고 붓고 충혈 되는 일이 잦다. 재채기가 동반되면서 맑은 콧물이 흘러 내린다. 여기에 따른 기침이 잦다. 물론 코감기 일 경우에도 대개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감기와 같은 감염성의 질환들은 며칠 지나면서 콧물이 누렇게 변색으로 변한다. 기침도 알레르기 질환일 경우에는 마른기침을 주로 하는 반면 감기의 경우에는 탁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기는 10일 정도면 증세가 호전되지만, 알레르기 천식이나 비염일 경우에는 감기가 걸린 것 같은 상태가 악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타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4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2013년

집전화 요금의 혁명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無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

6개월마다 공짜!!

최대 4개월* 쓰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났다!

행사기간: 2013년 1월 31일까지

AT&T

COX

Time Warner

Comcast

Verizon

Qwest

한국 070 전화서비스

\$9.99/월

미국 무제한 통화

비싼 집전화는 가라!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안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환불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 최대 4개월 무료 : 신규 가입자에 한해 매 5개월 사용마다 다음달 1개월 무료, 총 4개월 무료 적용됩니다.

본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가 있습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 규정 준수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최소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depot)을 발송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연간 2000여 달러)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의 동등화가 최소 30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및 이용요금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가 별도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 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유선요금(\$69.99)과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적용된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국제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지역 통話は 무제한 통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를 작성하는 기업, 에이전트, 미디어, 기타 관련 업체는 본 광고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蛇 20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3 EQUUS Signature



\$559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60,150
PH HYUDAI D/C \$3,582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066542)

2013 SONATA GLS



\$92 48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22,175
PH HYUDAI D/C \$684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589865)

2013 ELANTRA GLS



\$55 36Month leas /12k mile/ T.D.O 5,999
MSRP \$19,015 PH HYUDAI D/C \$427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TAX (STK. 248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